

國立公園 生態界 保護 長期戰略을 위한 基礎研究^{1*}

- 雪岳山 國立公園에 대한 訪問客 認識 調査 -

尹 英 -²

A Basic Study for the Long Term Strategy for Protecting Ecosystems in National Parks^{1*}

-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Visitors to Soraksan National Park -

Youngil Youn²

요 약

국립공원이 자연생태계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회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인식조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인식유형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통한 조사 결과, 국립공원은 감상지향형, 문화지향형, 휴양지향형, 경제지향형으로 설명되어진다. 처음 세 유형은 전통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 인식유형이며 경제지향형은 생태계 보호에 항상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요구하는 생태계 보호나 서구에서 유행하는 환경윤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는 공원관리 전반에 전통문화와의 접목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ABSTRACT

How the society perceives National Park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to achieve the goal for the National Park, which is to protect the ecosystems in the park. The survey for the visitors to Soraksan National Park was conducted to search for the answer to the ques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upon the perception types derived from the survey and factors affecting those types, the National Park can be explained by emotionally oriented type(scenic beauty), culturally oriented type, recreation oriented type, and economically oriented type. The first three types are strongly rooted in traditional culture, whereas the fourth type always conflicts with the goal of ecosystem protection.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be familiarized with both the concept of ecosystem protection required by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and the environmental ethics approach popularly promoted in the western world. The long term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ecosystem should be approached in a manner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can be integrated into all aspects of park management.

Key words : national park, perception of visitors, traditional culture

서 론

1. 연구가설 설정 및 연구목적

IUCN(국제 자연보전 연맹) 정의에 의하면 국

립공원은 자연생태계 보호가 설립목표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립공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많은 국립공원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Thorsell, 1992; Youn,

¹ 接受 1999年 3月 23日 Received on March 23, 1999.

²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t. of Forestry, Kongju National Univ. Yesan 340-800, Korea.

* 이 논문은 1997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993; 윤영일, 1996). 그러나 자연파괴, 환경오염으로 자연보호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자 국립공원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성공적 국립공원을 가진 국가들이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가 안정된 서구권에 있어 올바른 관리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Youn, 1993; 윤영일, 1996; 1997).

의심할 바 없이 사회-경제적 조건은 자연보호에 우선한다. 제3세계 국가에 존재하는 여러 국립공원이 존재위기에 몰리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ABN, 1985). 거기에 비해 한국 국립공원이 가지는 문제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했던 시기에 국립공원은 오히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가 커진 현재는 OECD 가입과 함께 사회-경제적 조건을 구실로 국립공원 내부 자연 생태계의 지속적 파괴를 국제적으로 용인받을 수 있는 국가는 더 이상 아니다. 또, 석유나 특수한 지하자원 등, 관광 이외에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특별한 자원은 공원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경관이 주 요소인 국립공원에서 관광이 중요하다면 자연파괴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생태계는 날이 갈수록 파괴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30년이 넘는 관리정책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실상 이 정도의 역사이면 최소한 공원 내에 스키장 혹은 골프장이 들어서거나(덕유산), 관광도로(지리산)가 새로 들어서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런 형태의 자연파괴 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흔히 인식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런 연구에도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관된 인식조사가 주류를 이룬다(Youn, 1993).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위에서 거론한 대로 단순히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원인을 찾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구동력이 된 것은 아닐까?

'National Park' 혹은 '자연보호'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념이다. 자연보호란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법적(제도적) 모습을 갖춘 것은 미국의 국립공원이 최초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개념이 성립되고 미국 고유의 문화로 자리잡는다. 즉, 자연보호, 혹은 훗날 나타난 '생태계 보호'는 서구문화이다. 그렇다면 흔히 문제해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실상 문화적 조건일 것이다. 더구나 우리 문화권은 서구문화와 성격차이가 심해 충돌이 불가피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서구 개념인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은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하였고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된 무리한 시도는 결국 연속적인 부작용만 창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념 도입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한 나라의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 인식 개선이나 변화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연경관이란 한 민족의 인식이나 의식, 즉 정신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Harmon, 1987; Knudson 등, 1995; Sellars, 1997).

이런 연유에서 연구 가설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미 개선되어 파괴가 필연적이지 않는데도, 끝없는 파괴가 진행되는 이유는 평범한 인식현상이 아니고, 서구문화인 자연보호를 거부하는 근본적 요인, 즉 문화적 조건이 이 현상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에 문화적 요인이 깊게 작용하여 서구식 자연보호 실현을 방해한다는 논지이다.

결국 자연보호를 제대로 수행하는 국립공원을 가지려면 관련된 인식이 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관련 인식을 이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두 경우 모두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연적이다. 이런 작업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사회에서 국립공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파악하는 일임은 당연하다. 그 후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 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설정된 가설을 인식유형과 영향인자 조사를 통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과 전통 문화적 요인이 가지는 연관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결국 자연파괴로 이어진 현재까지의 관리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생태계보호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에 기초정보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어 이미 조사

발표된(윤영일, 1998) 국립공원 관련 이권단체의 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국립공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그러나 분항결정과 인식유형 결정, 그리고 분항사용 가능성 검증이 주 목적이었던 1, 2차 조사(윤영일, 1998)보다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인식은 본 연구에서 실시되는 방문객 인식유형 조사의 결과가 더욱 잘 대변한다(비교, Schulz, 1985; Hofer, 1987).

물론, 단순하게 추출된 인식형, 즉 분항에 의거하여 조사된 결과가 모두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인식형이란 정보(분항) 투입에 대한 반작용(분석, 해독)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하게 조사된 인식형이 일반적 행위를 결정하는 기작의 일부에 주요 영향을 미치며, 결과로 나타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Flay, 1982; Rosenberg, 1969; Schulz, 1985; Hofer, 1987). 더구나 국립공원처럼 일상과 다른 특이한 환경에서는 그것이 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만 드러난 인식형이라도 행위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Schulz, 1985; Hofer, 1987).

행위로 연결되는 인식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인자-또는 범위를 좁혀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파괴 행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에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학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 환경인자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식 형성의 주요 인자를 가치(가치관)로 설정하며, 가치와 연계된 조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에는 가치 형성을 도덕적(개인적) 판단(예: Rolston, 1981, 1983)이나 개인적 선호에 연계시킨다(Strobel, 1979). 이중에서 선호도와 관련된 가치란 일반적으로 대상의 질을 의미한다(Strobel, 1979; 비교, Hofer, 1989).

이와는 달리 경제학에서는 가치를 순전히 대상체의 질로 보지만, 여기에서도 인간이 가치판단을 하는 주체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 경우 한 대상체에 대한 가치결정이란 판단주체에 의한 것이고 결국 개인의 선호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Hofer, 1987).

국립공원 같은 자연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역시 개인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결정(판단)은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Kmicciak,

1976)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가치와 인식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비고, Nöldner, 1984). 그러나 인식은 가치(가치관)보다는 특수 대상체에 종속되어 있고 행동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가깝다. 또, 가치는 인식보다 추상적 상태가 강하며, 흔히 개인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소망상태에 머문다(Rokeach, 1973; Strobel, 1979; 비고, Upmeyer, 1985).

결국, 가치와 인식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 해석과 행위(행태) 사이에서 중간단계이거나 연결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Flay, 1982). Flay(1982)와 Rosenberg(1969)는 가치기대 이론 및 가치-기구 이론을 이용하여 인식과 행위와의 연관을 조사하였다. Flay(1982)는 행위에 연결되는 인식이란 "일정한 행위에 관한 지칭된 선념(고정된 관념)의 주관적 확실성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평가)이 더해진 내적 지능"이라고 설명한다.

Rosenberg(1969)는 일정한 대상이나 상황 변화와 연관된 가치-기대 이론을 가치-기구(기능성) 이론으로 좁혀서 설명하였고,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를 하나는 개인적 가치(일상적 가치)의 강도,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 지각한 인식-대상의 실제 의미(기구성), 즉 그 기구가 해당 가치를 어느 정도 실행하거나 혹은 방해하는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항으로 실정된 위의 두 인자가 도출된 인식형을 많은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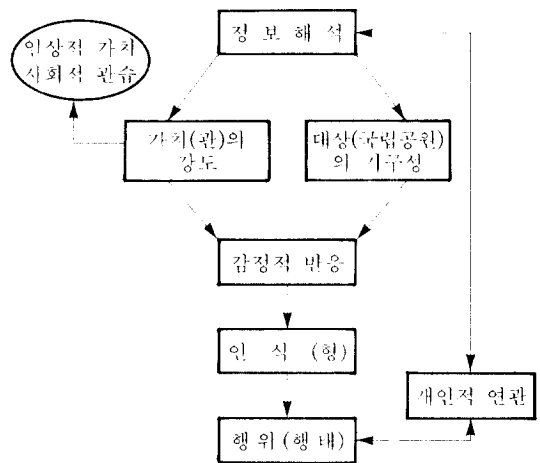


그림 1. 단순화시킨 Flay의 지각구조와 가치-기구이론 (Hofer, 1987, 일부변경)

Hofer(1987)는 Flay와 Rosenberg의 이론적 배경을 그림 1로 단순하게 정리하고 독일에서 자연 보호가 행위로 연결이 가능한 일상적 가치로 자리 잡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이론을 이용하였으나 Hofer와는 달리 설문조사로 수집된 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 인식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치관, 기구성, 문화적 인자)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인식형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행위로 연결되는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면 현재 국립공원에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1. 대상지 설정

1997년 10월 실행된 1, 2차 설문조사(윤영일, 1998)에서 이미 밝혀바 있듯이 설악산 국립공원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요구하는 보호등급 II를 미래에 만족할 수 있는 국립공원은 설악산에서나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원면적 대부분이 국유림(약 84%)이며 사찰림까지 합치면 거의 91%가 실제 자연보호가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 어떠한 국립공원보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원내의 사유림 문제는 실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토지소유개념이 특이한 우리 현실에서 사유림 면적이 많은 국립공원이 미래에 정상적으로 자연보호를 실행하는 기구로 성장하리라는 가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설악산에는 아직은 공원내에 덕유산의 레저단지나 지리산의 구조적 문제, 오대산의 사찰과의 마찰, 수도권에 들어있는 북한산의 위치문제 등, 문제의 규모가 너무 커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2. 설문조사 방법

방문객의 인식유형 조사와 관련 영향인자 검증에는 1, 2 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된 문항(윤영일, 1998)을 이용하였다<표 1>. 1차조사는 문항설정 조사를 위하여 설악산 국립공원과 관계된 다양한 계층(일반인, 설악인, 여행자, 현지인, 공무원, 불교계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120명을 추

출하여 직접조사방법(Paper-pencil)으로 실시하였으며 10개인식유형을 임의선정하고 약 8개씩의 문항을 설명문항, 총 8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조사 결과 총 8개의 인식유형만 유효하였고 유효문항은 총 30개로 인식유형당 3~4개의 문항이 결정되었다. 선발된 문항은 2차조사(우편조사)를 통하여 재검증되었으며 방식은 집단의 성격이 어느 정도 분명한 설악산 국립공원 관련 이익집단을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표 1. 1, 2차 조사에서 설정된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 (윤영일, 1998)

인식유형	문항에 따른 개념
보호지향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감상지향	수놓길 자연감상이나 동양산상이 가미된 자연미의 접촉이 중요하다
문화지향	국립공원은 전통문화(불교)를 유지해야 한다
휴양지향	농동각인 휴양(정상성부, 체력단련)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
학술지향	국립공원은 학문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향	국립공원의 교육적이고 홍보적 기능에 관심이 있다
윤리지향	후손에게 국립공원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경제지향	국립공원에서라도 경제가 우선이다

방문객 인식유형조사에서 도출된 인식형에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가치관과 국립공원에 대한 기구성(기구가 가치 달성에 미치는 기대)은 인식형의 종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끔 임의로 '경제', '자연보호', '교육', '아름다움', '휴양', '과학', '윤리', '문화'와 관련된 문항으로 결정하였다<표 2>.

표 2. 영향인자(가치관, 기구성)의 문항

인식유형 \ 인자	일상적 가치	기구성
보호지향	자연 보호	사익의 보전
경제지향	경제의 안정	지역경제의 발전
휴양지향	자연에서의 휴양	휴식공간 제공
감상지향	아름다움	아름다운 경관유지
교육지향	교육	방문객 홍보
학술지향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윤리지향	윤리	윤리
문화지향	문화	문화재

D) sampling, survey method 등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한국조경학회지 26(2)를 참고 바람.

인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Hofer(1987)와는 달리 추가로 선정된 문화적 인자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자연경관, 혹은 자연과 연관된 전통적 인식을 Pretest 1과 2(이익집단 조사)에서 부수적으로 의견을 쓰게 하여 수집하였다(윤영일, 1998). 조사에서 모집된 다양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자연과 합치' 혹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자연경관 혹은 자연과 관련된 무형적 요소(47%)에 '풍수'와 관련된 내용이 유형적인 요소(37%)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무형적 혹은 유형적 요소는 답변내용의 성격을 단순하게 분류한 것으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자연과 합치'와 '풍수'에 관련된 의견을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 8개 인식유형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각 4개의 문항으로 표현이 가능하였다 <표 3>.

이들 세 인자의 문항은 모두 test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성격을 지녀 순서척도(ordinal data)로 취급하였다. 조사는 일상적인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구성은 "아주 많이 기여한다"에서 "기여도가 전혀 없다", 문화적 부분은 제시된 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에서 "전혀 아니다"의 각 5단계로 리커트 척도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사항에 관한 인식형의 종속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아래의 두 가지 통계적 가설을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가설 1 : 일상적인 가치관과 기구성은 인식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 2 : 일상적 가치관과 기구성은 인식형에 상호(interactive)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가설은 5%-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사하였으며 모든 통계자료 분석에는 SPSS 8.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가설이 부정적인 경우, 즉 두 인자간에 상호성이 있을 경우는 개개 인자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 분석을 하였다. 이 경우 가치관-기구성을 합친 새로운 인자를 합성하여 검사하였다. 문화 인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되지만 가설 1만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η^2 은 설명하는 크기를 나타낸다.

방문객 설문조사는 1998년 4월말과 5월 중순, 6월 말(하계 방학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외설악(설악동)과 내설악(용대리, 백담사)에서 실시되었다. 총 1,150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누락 사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1,130매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 선발된 문화적 인자

인식유형	인자	자연과 하나가 된다 (무형적 요소)	종 수 (유형적 요소)
휴양지향		자연에서 휴양을 취하는 것	
감상지향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보호지향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	
경제지향		인간에게 유익하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	
윤리지향			후손을 위하여 묘터나 집터를 좋게 잡는 것
문화지향			주변경관을 변화시킬 때 산과 강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교육지향			인간사가 산천의 조화에 따름을 배우는 것
학술지향			산천의 신비한 힘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인식유형 분포 및 유형간의 상관

국립공원 방문객의 전체적인 인식유형 분포는 2차조사에서 나타난 이익집단의 인식유형 분포(윤영일, 1998)와 거의 비슷한 형상을 보인다. 인간 중심의 '윤리지향'형이 가장 높은 평균치(0.78)를 보이고 그 뒤를 '교육지향'형(0.74), 감상지향형(0.68)과 보호지향형(0.64)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따른다. 문화지향형이 평균치 0.53으로 중간 정도의 분포를 보이며 경제지향형(0.499), 학술지향형(0.497)이 그 다음 분포를 보이며 휴양지향형(0.45)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갖는다<표 4>.

표 4. 국립공원 방문객 인식유형 평균치

인식유형	평균	표준편차
감상지향	.6842	.1673
학술지향	.4976	.1330
휴양지향	.4558	.1837
경제지향	.4993	.1915
보호지향	.6462	.1611
윤리지향	.7858	.1726
교육지향	.7488	.1424
문화지향	.5358	.1665

인식유형의 분포형상은 감상지향형, 보호지향형, 윤리지향형, 교육지향형은 주관어 어느 정도 뚜렷한 “일치한다”에서 “매우 일치한다”에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학술지향형, 휴양지향형, 경제지향형, 문화지향형은 리커트 척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중립부분에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인식형 간의 상관을 조사해보면 전통 문화적 색채가 짙은 감상지향형은 경제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형과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지며, 특히 교육지향형, 윤리지향형과 높은 연관을 보인다. 윤리지향형 역시 대부분의 인식형과 깊은 연관을 보이며 국립공원에서 기대되는 휴양지향형도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다른 인식형과 연관이 높다.

이와 비교할 때 보호지향형은 다른 인식형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관을 보이며 학술지향형, 휴양지향형, 경제지향형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5>.

표 5 국립공원 방문객 인식유형 간의 상관

	문화	교육	윤리	보호	경제	휴양	학술
감상	.218**	.548**	.502**	.173**	.075*	.344**	.110**
학술	.217**	.121**	.060	-.022	.274**	.223**	
휴양	.328**	.235**	.207**	-.044	.330**		
경제	.251**	.153**	.074*	-.053			
보호	.022	.221**	.194**				
윤리	.156**	.453**					
교육	.205**						

*, **: 5%, 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 인식유형의 결정요인

(1) 일상적 가치관과 기구성이 인식형에 미치는 영향

서론에서 설정한 통계학적 가설 1, 즉 가치관과 기구성은 인식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가설은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형에서 부정되었다<표 6>. 인식형에 연관을 미치는 인자(가치관, 기구성)들의 주 효과는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5% 검증 유의수준을 만족하였으며 F 값은 각 두 개의 독립변수가 인식형에 어느 정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준다.

표 6. 가치관과 기구성이 인식형에 미치는 주효과 (sig. F, F, multiple R)

인식형	sign. F	F	multiple R
감상지향	.001	10.861	.112
윤리지향	.000	17.375	.139
학술지향	.000	17.466	.141
문화지향	.000	17.721	.140
휴양지향	.000	23.576	.163
보호지향	.864	.0376	.006
경제지향	.000	17.471	.141
교육지향	.090	2.866	.057

가치관과 인식형, 기구성과 인식형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가치관이 기구성 보다 인식형과 더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학술지향형, 문화지향형 인식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형이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인다. 기구성의 경우는 보호지향형, 윤리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5%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문화 지향형은 유독 높은 연관을 보였다.

표 7. 방문객 조사 - 인식유형과 가치관, 기구성의 상관

인식유형	인 자	
	일상적 가치관	기구성
경제지향	.105**	.158**
보호지향	.142**	.006
휴양지향	.187**	.185**
감상지향	.263**	.136**
학술지향	.027	.162**
교육지향	.202**	.059*
문화지향	.008	.374**
윤리지향	.241**	.004

*, **: 5%, 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 가치관과 기구성의 상호영향

두 번째의 가설, 가치관과 기구성이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은 부정되었는데 모든 경우가 유의수준 5%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8).

표 8. 가치관과 기구성의 상호영향 (F, sig, F)

유형	F	sig, F
경제지향	20.175	.000
보호지향	12.905	.000
윤리지향	5.212	.008
문화지향	14.425	.000
휴양지향	25.142	.000
감상지향	10.903	.000
교육지향	3.103	.015
학술지향	18.774	.000

가치관과 기구성이 서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들 간에 높은 연관이 있음을 뜻한다(표 9). 윤리지향형과 교육지향형을 제외한 두 인자의 높은 연관은 가치관과 기구성이 인식형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두 인자를 합하여 새로운 인자인 '가치-기구성'을 만든 뒤에 이 새로운 인자가 인식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여기서 η^2 는 결정영향 척도를 나타낸다(표 10).

표 9. 가치관과 기구성의 상관

경제지향	.256**
보호지향	.120**
교육지향	.059*
감상지향	.137**
휴양지향	.219**
학술지향	.275**
문화지향	.325**
윤리지향	.006

*, **: 5%, 1% 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분석결과 교육지향, 감상지향, 문화지향은 인식형 결정에 거의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학술지향, 보호지향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높이나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경제지향과 휴양지향이 중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점이다. 윤리지향은 매우 낮은 영향을 미쳐 거의 관련이 없는 결과를 보인다.

표 10. 가치-기구성이 인식형에 미치는 영향 (F, sig, F, η , η^2)

인식유형	F	sig, F	η	η square
교육지향	11.112	.000	.290	.084
경제지향	4.475	.000	.201	.040
휴양지향	8.734	.000	.241	.058
학술지향	2.354	.017	.148	.022
감상지향	11.877	.000	.298	.089
보호지향	2.387	.020	.138	.019
문화지향	12.125	.000	.305	.094
윤리지향	0.975	.435	.025	.000

(3) 문화적 요인과 인식형

국립공원인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8가지 문화(전통)적 요인이 각각의 해당 인식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 가설 1,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든 요인이 해당 인식형에 5%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이며 결정영향 척도 η^2 는 <표 11>과 같다.

문화적 인자가 인식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 문화적 색채가 짙은 감상지향형에서 가장 높고(9.6%)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제지향형이고(9.1%) 휴양지향형과 교육지향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향형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문화적 요인이 인식형에 미치는 영향 (F, sig, F, η , η^2)

인식유형	F	sig, F	η	η square
문화지향	5.516	.000	.157	.025
휴양지향	15.055	.000	.251	.064
윤리지향	4.543	.001	.143	.020
교육지향	11.505	.000	.224	.050
보호지향	7.357	.000	.180	.032
감상지향	23.406	.000	.310	.096
경제지향	21.926	.000	.302	.091
학술지향	2.478	.043	.107	.011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국립공원 탐방객 인식유형과 가치관, 기구성의 연관 분석

도출된 인식유형은 인간중심의 후손을 위하여 ... 라는 윤리지향형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며 이익집단(유영일, 1998)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윤리지향형이 학술지향형과 경제

지향형을 제외한 대부분 인식형과 높은 연관을 보여 비록 인간 중심적이지만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에 어느 정도 역할수행이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인식형의 실체는 간단히 인식유형간의 연관으로 분석한 결과와 상당히 나름을 알 수 있다.

윤리적 인식유형은 일상적 가치관과 깊은 연관을 가질 뿐, 국립공원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구성에서는 거의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 두 가지 영향인자를 조합한 가치-지구성과의 연관 역시 매우 낮아 의미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이 인식유형은 일상적 가치관인 인간위주의 '윤리'를 바탕에 둔 인식형일 뿐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과 연관을 가진 인식유형은 아니라는 것 과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이는 교육지향형은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유형과 정의 연관을 가진다. 더구나 윤리지향형과 마찬가지로 주관이 뚜렷한 '일치'에서 '매우 일치' 영역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영향인자와의 관계는 일상적 가치관과는 어느 정도 연관을 보이나 지구성 자체에서는 별다른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치-지구성에서는 높은 설명도를 보여 이 부분에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엿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향형이 두 영향인자와 보이는 관계에서 '방문객 홍보'라는 국립공원의 지구성이 현저히 낮은 연관을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중요시되는 교육열로 인하여 '교육' 혹은 '배운다'라는 문항의 난어에 대한 맹목적 추종 결과로 해석해야 하리라 본다.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깊은 산속에 홀로 있으면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 몰입한다' 혹은 '산의 신비함 때문에...'라는 문항으로 표현되어 전통 문화적 색채가 강한 감상지향형은 경제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유형과 높은 연관을 보이고 가치관, 지구성과 모두 밀접한 연관을 보여 인식형 중에서 가장 명확한 실체를 보인다. 더구나 예상 밖으로 분포가 낮은 휴양지향형과 매우 높은 연관을 보여 이 인식형의 문항선반이나 기타 조사에 신뢰성을 더해준다.

국립공원 조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보호지향형은 거의 중립성도의 분포평균치를 가진다. 교육지향형, 윤리지향형, 문화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유형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지구성에서 거의 연관을 보이지 않아 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

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연보호 운동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에서 존재하는 미약한 연관과 가치-지구성의 낮은 연관은 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생태계보호)가 여전히 허구임을 보여준다.

리커트 척도 조사법의 단점인 중간부분(중립)에 높은 분포를 가진 학술지향형은 보호지향형과 음의 관계를, 윤리지향형과는 아주 약한 연관을 보여 이 인식형이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경제지향형이나 휴양지향형과의 높은 연관은 문항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가치관과의 낮은 연관은 낭언하며 지구성과는 연관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격이 애매한 인식형이다.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형과 연관을 보이는 문화지향형은 국립공원 이디에나 존재하는 불교사찰과 직접 관련된 인식형이다. 보호지향형과의 낮은 연관은 아마도 탐방객의 많은 부분인 불교신도들이 느끼는 불교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한 피해의식이나 '자연보호'를 외치는 국립공원 관리주체와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예상된 결과는 휴양지향형과의 높은 연관이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질 구경'과 국립공원 방문의 주목적인 휴양과의 통상적 연계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일상적 가치관과는 낮은 연관을 보이지만 지구성과 가치-지구성에서 높은 연관을 보여 국립공원에서 매우 중요한 실존하는 인식형임을 보여준다.

조사에서 가장 높으리라 추정되는 휴양지향형은 예상 밖으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유형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특이한 결과가 아니며, 휴양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방문객들은 휴양을 해당 인식형이 아닌 다른 인식형으로 선정하였을 뿐이다. 이것은 휴양지향형이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유형과 상대적으로 고른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잘 드러난다. 즉, 감상지향형부터 심지어 학술지향형까지의 모든 인식유형을 휴양과 관련시키며, 그 중에서도 감상지향형과 가장 높은 연관을 보여 크케는 감상 역시 휴양의 한 형태로 인식함을 암시한다. 영향인자와의 연관도 가치관과 지구성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가치-지구성에서도 높은 설명도를 보인다.

가장 설명이 난해한 인식유형은 경제지향형이다. 보호지향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유형과 연관을 보이는 것부터 인식형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을 암시하지만, 문화지향형과의 높은 연관은 특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아마도 문화지향형 문항에 '전통적 이용...'이라는 문항이 있어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향인자에서나 가치-기구성에서 높은 연관과 설명도를 나타내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형 중에서 비교적 실제 존재가 잘 확인되는 인식유형이다.

(2) 인식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색채가 짙은 감상지향형은 문화적 요인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식형이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신비적 색채가 짙은 전통문화적 자연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예상 밖으로 높은 경제지향형과 문화적 요인과의 연관은 아마도 문항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연과 합치한다는 전통적 자연관에는 '인간에게 유익하게 자연을 이용한다'는 말 자체가 자연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학술지향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문화지향형 역시 아주 낮은 설명도를 보이는 것은 '주변경관을 변화...'라는 문항 자체가 문화적임을 탐방객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주로 불교사찰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는 인식형이 가지는 한계로 보여진다.

보호지향형이 낮은 설명도를 보이는 것은 동·서양의 자연경관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자연의 순리...'라는 문항이 바로 '자연보호'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 자연보호는 여전히 서구문화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 및 제언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장기전략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된 방문객 인식유형, 조사와 인식형성에 관련된 인자 조사는 비록 설문조사라는 한계성을 내포하지만 연구 가설의 증명에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통계분석 상에서 확실하게 실체를 보이는 인식형은 감상지향형과 문화지향형, 경제지향형 그리고 휴양지향형이다. 여기서 경제지향형을 제외한 세 인식형은 전통문화적 색채가 매우 짙다. 감상지향형은 동양문화적 색채가 주 요소

이며, 문화지향형은 불교문화 위주이다. 또 휴양지향형은 위의 두 인식형과 높은 연관을 보여 결국은 성격이 비슷한 유형이다.

교육지향형은 실제 현지에서는 자연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아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높은 평균치를 가진 윤리지향형에서는 서구 국립공원에서 보이는 환경윤리 같은 사항은 찾아 볼 수 없어 국립공원과는 애초에 무관한 인식형으로 보인다. 결국 사회 전반에 인식되는 국립공원이란 문화적 색채가 강한 인식유형과 생태계 보호에 항상 문제로 나타나는 경제지향형 인식으로 설명될 뿐이다. 전체적으로 설정된 가설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물론 제한된 설문조사로 명백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Bortz, 1985; Kraus 등, 1997). 더구나 처음부터 문제로 붙어 다니는 문항 설정에 필요한 언어학적 능력의 한계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러한 연구는 사실의 일부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윤영일, 1998). 또한 가치관, 기구성 등 영향인자 설정에도 훨씬 넓고 깊은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문화적 요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참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문항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보더라도 전체 결과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 주소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라는 인식은 사회에서 아직도 허구라는 점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입된 자연보호 개념은 오늘날까지 국립공원이 자연 보호 기구라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립공원(IUCN 보호범주 II)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로 밝혀진 현실은 생태계보호를 위한 장기전략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암시하여 준다. 우선,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생태계보호는 필수적 사항이나 실재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는 점이다. 사회에서 인식되는 국립공원의 실체를 망각한 채 행해진 현재까지의 여러 정책은 끝없는 자연파괴로 연결되었고 결국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 일부 지역의 이용제한(휴식년제)이나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고려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장기적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서구식 자연보호가 성립되지 못하는 풍토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보

호하려면 인식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전통 문화적 요인과 접목을 시도하여 사회에서 수용이 가능한 자연보호로 향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리라 본다.

전통문화와 접목방향은 인식형이 말해주듯이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으리라 보여진다. 우선은 전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용방식을 발굴, 응용하는 방식과 불교사찰과 적극적 연계 및 연대,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행태를 휴양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으리라 사려된다.

위의 장기적 구상이 실현되는 경우 우리 국립공원은 당연히 서구 국립공원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만 다를 뿐 그 목표는 같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경우 그때서야 우리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National Park'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인 용 문 헌

1. 윤영일. 1996. 국립공원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동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2) : 53-61.
2. 윤영일. 1997. 국제자연보존 연맹의 정의 이해를 통한 우리 국립공원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5(2) : 1-8.
3. 윤영일. 1998. 국립공원에 관한 인식유형 개발-이익집단의 인식유형 조사. 한국조경학회지. 26(2) : 110-117.
4. ABN(Arbeitsgemeinschaft beruflichen und ehrenamtlicher Naturschutz). 1985. Nationalparke - Anforderungen, Aufgaben und Lösungen. Jb.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d. 42. Bonn.
5. Bortz, J. 1985. Lehrbuch der empirischen Forschung für Sozialwissenschaft. Berlin-Heidelberg-New York-Tokyo; Springer.
6. Flay, B.R. 1982. Verhaltensänderung durch Gesundheitsprogramme in den Massenmedien : Theoriemodelle und Möglichkeiten ihrer Anwendung. In : Meyer, M.(ed., 1982). Gesundheitserziehung in Fernsehen und Hörfunk. München, New York, London, Paris : Saur : 58-89.
7. Harmon, D. 1987. Cultural diversity, human subsistence, and the National Park Ideal. *Environmental Ethics*. 9 : 147-158.
8. Hofer, D. 1987. Naturschutz als Wertobjekt : Eine exemplarische Studie über Einstellungen zur Schutzgebieten. Diss. Forstwiss. Fak. Uni. München.
9. Knudson, D.M., Cable, T.T. & Beck, L. 1995. Interpre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Venture Pub.
10. Kraus, R. & Allen, L.R. 1997. Research & Evaluation in Recreation, Parks & Lesiure Studies(2nd. ed.). Gorsuch Scarisbrick.
11. Nöldner, W. 1984. Psychologie und Umweltprobleme. Beiträge zur Entstehung umweltverantwortlichen Handelns aus psychologischer Sicht. Diss. Univ. Regensburg.
12.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3. Rolston, H. 1981. Values in Nature. *Environmental Ethics*. 3(1981) : 113-128.
14. Rolston, H. 1983. Values Gone Wild. *Inquiry*. 26(1983) : 181-207.
15. Rosenberg, M.J. 1969. Attitüden bezogener Affekt und kognitive Sturktur. In : Maus, H. and Fürstenberg, F.(ed.). *Soziologische Texte*. Bd. 45 : 310-324.
16. Schulz, W. 1985. Einstellungen zur Natur.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Diss. Forstwiss. Fak. Uni. München.
17. Sellars, R.W. 1997. Preserving nature in national parks : a history(first Ed. 1935). Yale Univ. New Haven & London.
18. Strobel, M. 1979. Die Messung individueller Wertpräferenzen. Diss. Uinv. Zürich.
19. Thorsell, J. 1992. Sixteen areas added to global threatened park list. *Ambio*. Vol. 21(2) : 187-188.
20. Upmeyer, A. 1985. *Sozialae Urteilsbildung*. Stuttgart-Berlin-Köln-Mainz. Kohlhammer.
21. Youn, Y.I. 1993. Nationalpark-Idee und Praxis : Versuch der Entwicklung einer tragfähigen Nationalpark-Alternative für die Republik Korea unter Beachtung insbesondere kultureller Einflüsse. Diss. Forstwiss. Fak. Uni. Freiburg.